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말씀이 목표물을 명중할 때 [느헤미야 8:9-18]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읽이니라 13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14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찌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월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화살이 과녁을 명중할 때 여러분은 화살이 어디에 꽂혔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녁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꽂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종종 말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는지, 깊이가 있는지 아니면 좋은 적용이였는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설교말씀; 느헤미야에 나타난 모습은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8-13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재건의 중심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모습을 보입니다. 반나절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한 설명을 주위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본문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꽂힐 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들을 감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힐 때 두 가지 다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첫째, 슬픔과 비통의 감정입니다. 때때로,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불편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슬프고 비통해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계명과 조항들을 읽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분의 말씀을 어겼음을 알고 비통해 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음을 악고 비통해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혔는지 아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기쁨과 축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번이나 비통해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당부 받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성경에

나온 놀라운 축제를 축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할 때 계속 슬퍼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기쁨, 그분의 모든 축복들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종류입니다. 이 기쁨이 명령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과 동일합니다.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꽃힐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 13절은 우리들을 새 날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읽고 초말절의 축제를 지키라는 계명을 찾았습니다.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풀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풀들로 그들 가족들이 일주일간 머물 작은 초막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설교를 비판하거나 그들이 설교말씀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치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본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이 순종이 따분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느헤미야 8:17). 거룩함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순종"의 찬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꽃힐 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